

SK, 중국 석유 · 화학기업과 긴밀 협력

Sinopec · CNPC 감사담당자 SK 방문 ... 지배구조와 관리시스템 견학

SK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관리시스템이 중국에 전파된다.

SK에 따르면,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관리 고위 공무원과 국영기업의 감사담당자 20명은 SK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5월19일 오후 서울 서린동 SK 본사를 방문했다.

이사회 사무국과 감사팀에 들러 SK의 지배구조 개선 성과, 기업내부 관리 감독시스템의 구성 및 효과, 리스크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.

SK를 방문한 중국 공무원은 샤중런(夏忠仁)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감찰국 부국장을 비롯한 9명이다.

여기에 중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· 화학기업인 Sinopec과 CPNC에서도 SK를 배우기 위해 11명의 감사담당자들을 파견했다.

국무원 산하기관인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SK와 활발하게 사업교류를 진행중인 Sinopec, Sinochem 등 대표적인 에너지 · 화학기업을 포함해 200여개에 달하는 국영기업들을 지분을 보유하면서 관리 · 감독하고 있다.

중국 국영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료들과 감사담당자들이 대거 SK를 방문한 것은 시장경제가 확산되면서 서구식 지배구조 및 내부관리통제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.

중국 관계자들은 5월20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시찰한 뒤 5월22일 일본으로 출국했다.

SK 관계자는 “중국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SK의 지배구조개선 사례와 내부통제관리시스템에 중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, 고위급 인사들이지만 강의실에 들어온 학생처럼 열심히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”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05/23>